

인구 5만 지자체의 '대박 박람회'... 대나무산업 미래를 보다

뽕부쇼·주제관 등 볼거리 풍성
오감만족 다양한 체험행사 인기
사후관리 부담없는 시설 성과도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지난 31일 폐막식을 끝으로 4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담양 추성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박람회 기록 영상물 상영, 가수 이은미·인순이·남진·박상민의 '4인 4색' 콘서트 등이 이어졌다.

▷관람객 104만명~담양, 광주, 전남이 '들썩' =박람회는 인구 5만의 담양에서 치르는 첫 국제행사이자 담양을 상징하는 대표 부존자원인 대나무를 소재로 한 첫 박람회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애초 목표 관람객인 90만명을 지나 10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하루 평균 담양군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2만 3000여명이 담양대나무박람회장을 다녀간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여러 전시·체험행사로 대나무의 산업적, 인문학적 가치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죽녹원 '대나무숲 8길'의 오감만족 체험행사,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센터는 박람회 기간 필수 관람코스로 큰 인기를 얻었다.

대형 홀로그램을 이용한 뮤지컬 형식의 '뽕부(Bamboo)'는 여수박람회장 대표 공연인 빅오쇼를 뛰어넘었다는 극찬과 함께 관람을 위한 대기행렬이 연일 이어지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대나무 공예 시연·체험장인 대나무 명인촌, 어린이 등을 위한 대나무 체험학교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관람객들을 만족시켰다.

관방제림에 있는 '달빛 예술창고'에서는 국



내 최초로 제작된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연주 가 하루 두 번 울려 퍼졌으며 대표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 길에서는 가로수 축제가 열려 박람회 흥행에 힘을 보탤다.

▷대나무 고부가가치 산업소재 등 경제적 가치 확인 =대나무가 죽세공에 뿐 아니라 약기, 주방용품, 건축, 조경 등 다양한 생활·문화 영역에 활용된다는 인식을 확산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조직위는 정부 차원에서 대나무 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담양을 국내 대나무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약속도 있었다고 밝혔다. 세계 대나무 협회(World Bamboo Organization)와 담양군은 지난달 21일 담양에서 열린 제10차 세계 대나무 총회에서 '지구를 위한 대나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구세대의 산림 규제에서 벗어나 대나무 식재를 장려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며 "에너지, 건축, 의료, 교통, 농업 등 각 분야에서 대나무의 복합적인 사용을 촉진하도록 혁신적 정책을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담양군은 박람회를 대나무 산업 메카의 입지

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 대나무의 인문학·산업·환경적 고부가 가치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더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대나무 박람회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람회를 통해 182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05억원의 부가가치, 548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후 활용 계획 이미 '끝'...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 =담양군은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분석해 사후관리 부담이 없는 박람회 시설물 구성에 전력을 쏟았다. 신규 시설물을 짓는 대신 자연을 활용해 죽녹원을 지붕 없는 주제관으로 활용했으며, 박람회 이후에는 죽녹원을 국가정원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이이남 아트센터 등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보존하는 한편 이번 박람회 기간동안 전시했던 작품들 중에서 인기를 끈 전시작품들은 한국대나무박물관에 재전시해 관람객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천년 담양’ 만들 것”

박람회조직위원장 최형식 담양군수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45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군(郡) 단위 최초의 국제박람회라는 점에서 흥행 실패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목표 관람객인 90만명을 지나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대박을 터트렸다.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는 1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메르스라는 약제와 경기불황, 인구 5만명에 불과한 열악한 군세 등을 극복하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담양군민과 공직자들의 열망이 뽕진 결과물”이라면서 “이제는 담양을 세계를 대표하는 대나무 도시로 성장시키고, 죽녹원의 국가정원 등록과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한 ‘뽕부 디자인 비엔날레’ 추진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르스와 경기 약화 등 각종 우려 등을 씻고 ‘성공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담양의 향토자원인 대나무를 소재로 삼아 대나무의 환경적·산업경제적·인문학적 가치 등 대나무의 무궁무진한 가치와 대나무의 과거·현재·미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한 점이 가장

군민·공직자 열망 뭉쳐 성공 ‘뽕부 디자인 비엔날레’ 추진 죽녹원, 국가정원 등록도

큰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박람회 성공을 염원하는 담양군민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담양군 공직자의 열망이 결합돼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 성공의 큰 원동력이 됐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은.

▲대나무박람회 기획단계부터 박람회 후 각종 시설물의 사후활용 계획도 함께 진행해 왔다. 대나무박람회는 담양 대표 자연관광 자원인 죽녹원 자체를 그대로 지붕 없는 주제관으로 구성했으며, 종합체육관을 주제영상관으로 활용하는 등 신규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억제했다. 꼭 필요한 시설물은 해체 및 조립이 단순한 대형 텐트(TPS 텐트)로 대체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죽녹원은 국가정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이남 아트센터는 담양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박람회 전시작품들 중 활용 가능한 작품들은 한국대나무박물관에 전시해 관람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생태도시 담양선언문’에 담긴 의미는.

▲폐막식에서 발표한 ‘담양선언문’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잘 가꾸고 지켜 지속가능한 담양을 미래에 물려주



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담양군민의 다짐과 실천의지를 모아 군민이 앞장서고 행정과 사회, 사회단체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천년 담양’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군정의 핵심가치로 삼고 모든 정책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원칙에 따라 수립하고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융합해 실행해 나가겠다. 또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녹색경제활동, 신재생에너지 사용, 녹색교통수단 이용, 건강한 토양 보존에 의한 안전먹거리 생산 등 친환경 농축산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담양을 만들어 내는 것도 담양선언문에 포함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번 박람회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최선을 다해 다양한 대나무 콘텐츠를 준비한 덕분에 대부분 좋은 평가를 해주셨지만, 145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대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모든 분들과 공유하고 인식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데, 전국적으로 가을축제가 많고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은 거리감 등 제약사항들이 있어 더 많은 분을 담양으로 모시지 못한 점도 아쉽다.

-박람회가 끝났다.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는 ‘광주’, 관광은 ‘전남’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담양은 광주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과 잘 보존된 생태환경,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는 만큼 ‘광역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나무박람회를 통해 대나무가 조경, 건축, 인테리어 등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만큼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해 ‘뽕부 디자인 비엔날레’를 같은 기간에 개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담양 죽녹원 등 담양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발굴 등 담양 관광 인프라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님들의 열을 다시 한번 기립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음10.3) 우리의 개국일은 개천절과 일본의 국경일인 명치절이 겹친가운데 한국학생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민족적 울분을 갖게된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의거이며, 3.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해방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기념하여 이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학생들은 이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웠습니다. 6·10만세와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모든 나날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존재해 희망차게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이제 우리 님들을 위해 고개숙여 다시 한번 지난 그날들을 상기해 봅시다.

- 목포교육 지원청
- 국립목포대학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세한대학교
- 초당대학교
- 신안교육 지원청
- 목포가톨릭대학교
- 동아인재대학교
- 한국학원 목포시총연합회
- 한국폴리텍5대학 목포캠퍼스
- 목포과학대학교